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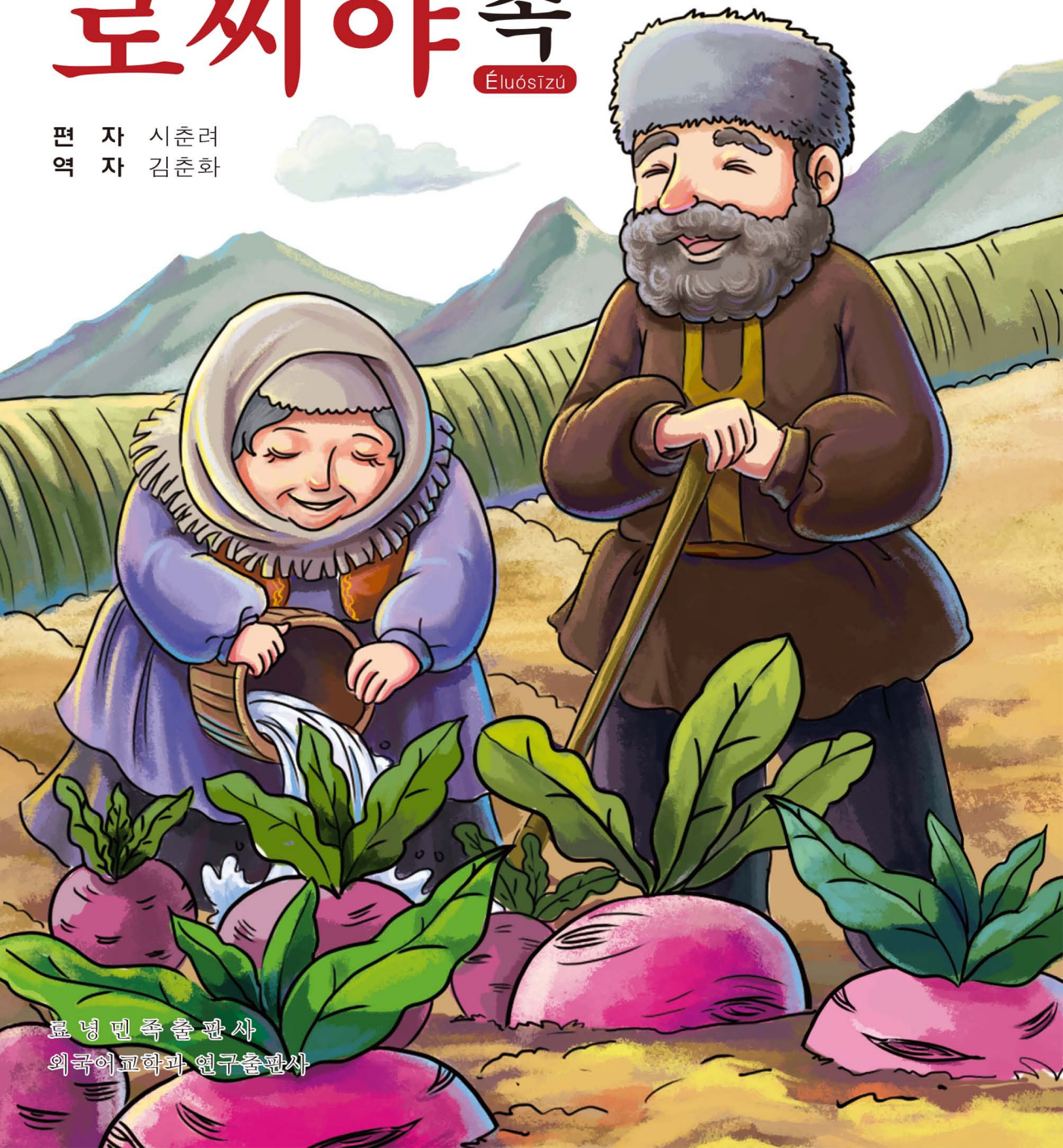
로씨야족

俄罗斯族

Éluóshìzú

편자 시춘려

역자 김춘화



표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春花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俄罗斯族：朝鲜文 / 时春丽编；金春花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6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819-2

I. ①俄… II. ①时… ②金… III. ①俄罗斯族—民族
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4.4-4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143531 号

俄罗斯族

ELUOSI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奇兴彩色广告印刷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 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 年 6 月第 1 版

印刷时间：2014 年 6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19-2

定 价：18.00 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샐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녜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로씨야족의 의식주와 교통

여우가 승냥이에게 털외투를 지어준 이야기 /9

흰빵 세개와 가락지빵 하나 /11

둥근빵에 관한 이야기 /13

오색령통한 목각룽 /17

쥐의 작은집 /19

나무다리곰에 관한 이야기 /21

교만한 말에 관한 이야기 /25

제2장 로씨야족의 생산생활

자작나무 한그루와 매 세마리 /27

두개 보습에 관한 이야기 /31

유언에 관한 이야기 /32

허풍쟁이 수탉 /33

여우녀동생과 승냥이오빠 /35

제3장 로씨야족의 레의와 풍속

바보의 청혼 /40

사랑에 빠진 사자 /41

여우가 곡을 한 이야기 /43

제4장 로씨야족의 문화예술

- 계으른 녀인에 관한 이야기 /45
- 고양이통수에 관한 이야기 /47
- 참회를 들으려고 피하는 여우 /55
- 투와의 유래 (1) /59
- 투와의 유래 (2) /61
- 손퐁금의 매력 /63
- 목동의 단저 /65

제5장 로씨야족의 명절풍속습관

- 부활절 /73
- 크리스마스트리에 관한 전설 /75
- 크리스마스양말에 관한 이야기 /77
- 사육제날 /79



제1장 로씨야족의 의식주와 교통

우리 나라 로씨야족은 로씨야이민의 후예와 로씨야사람과 중국사람이 통혼하여 낳은 후대를 포괄한다. 로씨야족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중의 하나이다. 2000년 전국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로씨야족인구는 15,609명이며 주로 신강, 내몽골, 북경, 하북, 료녕, 흑룡강 등지에 살고있다.

로씨야족의 본민족언어문자는 로어와 로문으로서 슬라브문자를 사용하는데 인쇄체와 필기체의 구별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로씨야족의 젊은 세대들속에서 로어는 점차 소실되고있다. 현재 그들은 모두 한어로 말하고 한문을 쓰고있다.

로씨야족은 전통적으로 로씨야식복장을 입는다. 남자들은 여름에는 흰색의 수놓은 적삼과 진한색 승마복을 입는다. 겨울에는 솜옷에 가죽외투를 입고 목이 긴 방한화를 신는다. 녀자들은 사계절 원피스를 즐겨입는다. 겨울에는 스웨터와 모직 내복을 입고 긴 외투를 입으며 가죽으로 된 가죽장화를 신는다.

로씨야족이 생활하는 지구는 위도가 높아 온도가 낮고 춥다. 하여 로씨야족에게 있어서 모자와 털외투는 아주 중요한것이다.

여우가 승냥이에게 털외투를 지어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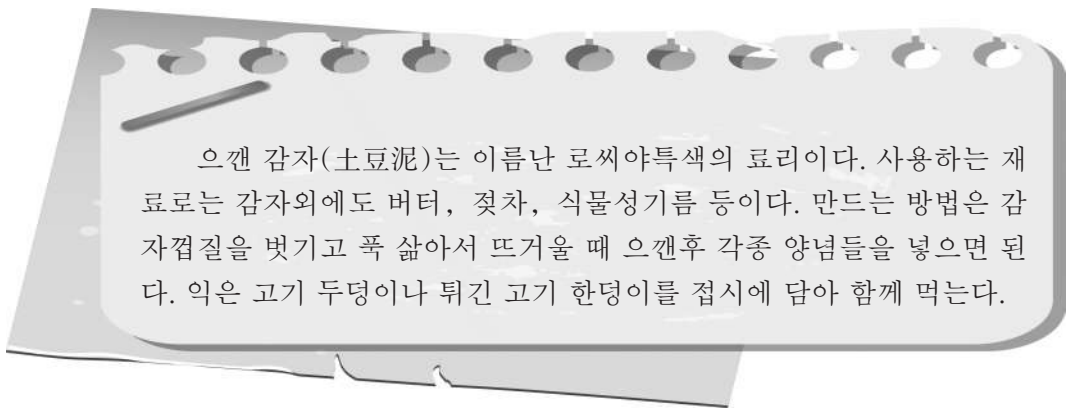
승냥이 한마리가 삼림속을 건다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고있는것을 보고는 왜서 매일 나무를 쪼아대며 일을 하지만 평생 집 한칸을 짓지 못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딱따구리가 너는 왜서 그렇게 많은 짐승을 물어죽이고도 평생 털외투 한건지 해입지 못하는가고 말했다. 승냥이가 듣고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는것 같아 여우를 찾아가서 면양을 잡아다줄테니 털외투 하나만 지어달라고 간청했다. 여우가 승낙하자 승냥이는 한마리 또 한마리의 면양을 잡아다주었는데 털외투는 구경할수 없었다. 그것은 여우가 매번 양고기를 먹고나서는 양털을 시장에 가져다 팔아버렸기때문이다. 승냥이는 여우에게 털외투를 언제면 만들어낼수 있는가고 물었다. 여우가 말했다. “오늘 저녁무렵이면 되는데 번두리에 테를 두르자면 털이 필요해. 마을의 한 채마밭에 말 한필이 있을테니 네가 가서 말을 물어죽이고 말꼬리와 말갈기를 가져와서 테를 두르도록 하자!” 승냥이는 그길로 가서 말을 물려고 하다가 말의 뒤발질에 차여서 그만 죽고말았다. 승냥이의 뼈는 지금도 눈우에서 빛을 뿌리고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로씨야족 음식은 색다른 특색을 갖고있다. 여러가지 중식반찬을 먹는것외에 로씨야식빵인 “레바(列巴)”, 젓차, “시미단(希米丹)”, 과일단졸임, “수바탕(苏巴汤)” (로씨야식 남새국) 등 여러가지 로씨야특색의 식품을 즐겨 먹는다. 로씨야족의 밀가루과자는 20여종이나 되는데 주식으로 먹는 빵, 단음식, 다과 등을 포괄한다. 로씨야족 빵에 관한 민간이야기는 아주 많다. 그중에서 “흰빵 세개와 가락지빵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하다.

흰빵 세개와 가락지빵 하나

한 농사꾼이 배가 고파 흰빵 하나를 사먹었다. 그래도 배가 고파 또 흰빵 하나를 사먹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자 세번째로 또 흰빵 하나를 사먹었으나 여전히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락지빵을 몇개 사서 하나를 먹었다. 그랬더니 배가 불렀다. 농사꾼이 자기머리를 치며 하는 말이 “난 정말 둔해! 왜 이렇게 많은 흰빵을 랑비했지? 처음부터 이 가락지빵 하나를 먹었어야 하는데!”



으깬 감자(土豆泥)는 이름난 로씨야특색의 요리이다. 사용하는 재료로는 감자외에도 버터, 젓차, 식물성기름 등이다. 만드는 방법은 감자껍질을 벗기고 폭 삶아서 뜨거울 때 으갠후 각종 양념들을 넣으면 된다. 익은 고기 두덩이나 튀긴 고기 한덩이를 접시에 담아 함께 먹는다.

누구나 다 아는 또 하나의 둥근빵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둥근빵에 관한 이야기

옛날에 로부부가 살았는데 자식도 없이 아주 어렵게 살아갔다.

령감이 로친에게 말했다. “해봅시다, 로친, 바구니를 가시고 나무상자를 털어 빵 하나를 만들만한 밀가루를 장만하지 못하겠소?” 로친은 령감의 말대로 하여 밀가루를 장만했다. 그는 신젓과 밀가루를 한데 저어서 작은 둥근빵 하나를 만들어 버터를 바른후 구워서는 식히려고 창턱에 올려놓았다.

창턱에 누워있던 빵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 구르기 시작했다. 창턱에서 구들로, 구들에서 마루로, 마루를 따라 문앞으로,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 마당을 거쳐 대문밖으로 줄곧 굴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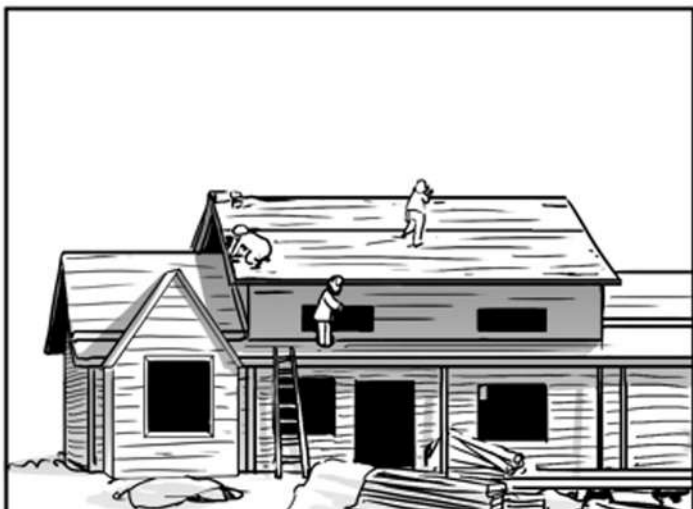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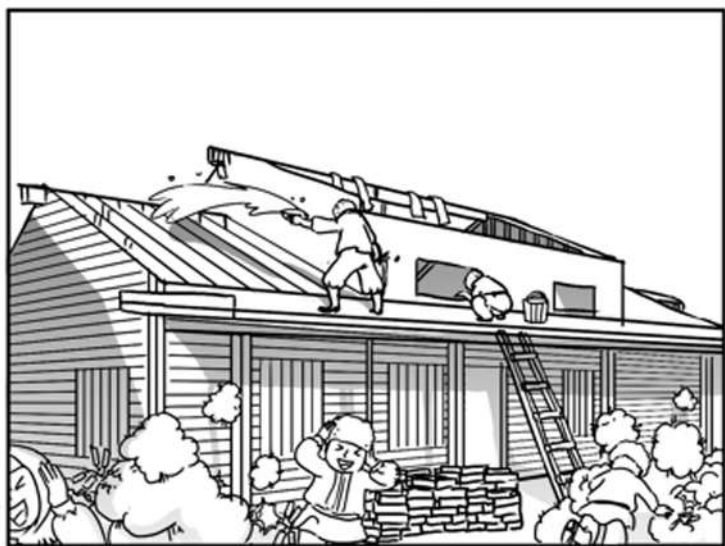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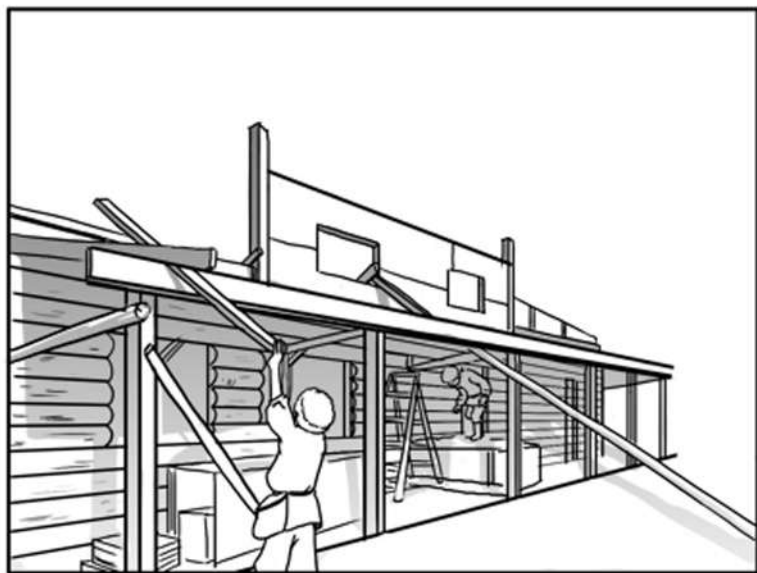
빵은 길을 따라 구르다가 토끼 한마리를 만났다. “둥근빵아, 둥근빵아, 너를 먹어버리겠다!” “먹지마, 토끼야,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바구니 가시고 / 나무상자 털어 / 이 둥근빵을 만들어 / 신젓넣고 저어서 / 버터 바르고 구워내고 / 창턱에 놓고 식히면 더 맛있지. / 난 아버지한테서 도망치고 / 엄마한테서 도망쳤으니 / 토끼야, 난 너에게서도 도망칠거다!” 둥근빵은 노래를 마치고 길을 따라 굴러갔다. 토끼는 눈앞에서 사라지는 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둥근빵은 구르고 구르다 승냥이를 만났다. “둥근빵아, 둥근빵아, 너를 먹어버리겠다!” “먹지마, 승냥아,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하고는 토끼에게 불렀던 노래에다 한마디 덧붙였다. “...난 토끼에게서도 도망쳤으니 / 승냥이 너한테서도 도망칠거다!” 노래를 마치고는 길을 따라 빠르게 굴러갔다. 승냥이도 둥근빵이 눈앞에서 도망가는것을 지켜볼수밖에 없었다.

둥근빵은 구르고 구르다 곰과 만나게 되었다. “둥근빵아, 둥근빵아, 너를 먹어버리겠다!” “발가락이 안으로 굽은 놈이 어디서 나를 먹어버리겠다는거야?” 하며 승냥이에게 불렀던 노래에 또 한마디를 덧붙였다. “...난 토끼한테서도 도망쳤고 / 승냥이한테서도 도망쳤으니 / 곰아, 난 너한테서도 도망갈거다!” 노래를 마치고 또 나는듯이 굴러갔다. 곰도 눈을 편히 뜨고 도망가는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둥근빵은 구르고 구르다 여우와 만났다. “둥근빵아, 둥근빵아, 넌 어디로 굴러가니?” “난 이 길을 따라 굴러가면 돼.” “둥근빵아, 둥근빵아,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렴아!” 둥근빵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둥근빵이 노래를 마치자 여우가 말했다. “아이구, 네 노래가 정말 듣기 좋구나. 그런데 유감스럽게 잘 들리지 않는구나. 둥근빵아, 둥근빵아, 내 코등에 올라와 큰소리로 다시 한번 부르렴아!” 둥근빵은 여우의 코등에 올라가 큰소리로 또 한번 불렀다. 여우가 또 말했다. “둥근빵아, 둥근빵아, 마지막으로 나의 혀끝에 올라와 불러보렴아!” 둥근빵이 여우의 혀끝에 올라서는 순간 여우는 입을 다물고 먹어버렸다.



오색령롱한 목각룽

로씨야족이 사는 집은 대부분이 독립가옥으로 되었는데 로씨야식 원목으로 지은 집으로서 “목각룽(木刻楞)”이라고 한다. 목각룽은 주로 나무와 도끼로 조각했기에 룽과 각이 선명하고 아주 규범화되어 얻어진 이름이다.

목각룽을 짓는데는 다섯가지 절차가 있다. 첫째, 아주 굵은 송목을 기초에 쓰는데 송목의 직경은 보통 60센티미터 이상이고 치수에 따라 두끝에 장봇구멍을 뚫어 장방형틀이 되게 박아넣는다. 둘째, 굵기가 비슷한 원목들을 골라서 아래우 두끝을 반반하게 깎은후 일정한 치수로 구멍을 뚫고 나무못을 박는다. 층층이 차곡차곡 포개여쌓는데 쌓는 과정에 창문을 낸다. 원목을 쌓아올릴 때 이끼를 끼워 넣는데 구멍을 메우는 작용을 해 바람이 들지 않는다. 셋째, 들보우에다 나무판자를 깔고 그 위에 톱밥이나 마분을 덮는다. 넷째, 먼저 “인(人)”자형의 나무틀을 만들고 나무틀에다 굵기가 알맞는 각재를 편 다음 나무기와를 엮는다. 나무기와를 만들 때 먼저 무늬가 고르고 질이 좋은 락엽송원목을 골라서 1미터 좌우의 길이로 자른 다음 도끼로 짜개면 된다. 나무기와는 비를 막는 성능이 좋고 잘 썩지 않아 수십년은 견딜수 있다. 로씨야족은 들보를 올릴 때 특색이 있다. 들보를 올리는 날에 비가 와야 좋다고 생각한다. 비가 오지 않으면 주인은 들보에 대고 물을 뿌려 길함을 표시한다. 그리고 들보가운데 붉은천을 걸어놓는다. 들보를 올리는 시간은 점심을 선택하고 폭죽을 터뜨려 축하를 표한다. 다섯째, 벽돌로 벽난로를 쌓는데 가운데를 협층으로 하여 주방난로와 서로 통하게 한다. 난로안의 연기는 벽난로를 거쳐 아래우로 순환하며 굴뚝으로 나가게 되었다. 벽난로는 온도를 높여주어 량쪽거실을 따듯하게 해준다.

옛식목각룽은 겨울에 덥고 여름에 시원하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옛식목각룽의 집안은 에어컨을 틀어놓은듯 시원하다.

로씨야족 목각룽문은 대부분 북향으로 되었으며 남쪽벽에다 창문을 낸다. 찬 바람이 직접 방안으로 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해 방문밖에다 복도와 비슷한 사랑채를 짓는다. 집처마, 창문처마, 문처마에는 모양이 특이한 장식판자를 달아놓고 거기에 나무조각과 그림까지 더해준다. 보통 노란색, 푸른색, 파란색 등을 위주로 각가지 무늬와 도안을 조각하여 색채가 아름다운 민족특색을 나타낸다.